

일지역 보건교사의 지각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오 경 옥* · 강 문 희** · 이 선 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교사는 학교보건계획,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질병예방, 보건지도, 건강상담 및 평가 등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전문교사이다. 최근 학교보건과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서비스, 환경관리 및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인구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학교건강증진사업의 핵심인력이 되고 있으며 이처럼 보건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Green & Reffel, 2009; Yang, Kwon, Jeong, & Lee, 2009). 보건교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교사는 직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교사로서의 역할과 의료인으로서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직업정체성의 혼란과 입시위주의 학교환경에서 일반교사와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Kang, Cho, & Jung, 2010). 이러한 직무에 대한 부담감과 갈등은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지는데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 자신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2). 즉 교사의 직무스트레

스는 교사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에게 있어 교사는 중요한 동일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증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의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99). 대부분의 성인은 직업과 가족으로부터 삶의 만족을 얻게 되며 동시에 직업과 가족은 성인의 주요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한다.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생산성,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및 경제적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결국 가족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2003; Tennant, 2001). 오늘날과 같이 대부분의 근무환경에서 직무부담과 직무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직무스트레스는 직업을 가진 성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질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rman & Glanz, 2002). 직무환경에 부적합한 개인은 심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된다(Dragano, He, Moebus, Jockel, Eebel, 2008: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mhgang@cnu.ac.kr)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투고일: 2011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월 8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11일

Yoon, Bae, Lee, An, & Kim, 2006). 우울은 현재 기능장애나 자살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건강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우울이 정신사회건강과 관련되어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울은 가족과 사회환경에 관련한 생활사건, 대처전략, 삶의 질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Siu, Lu, Cooper, & Phillips, 2009). 직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도 우울이나 정신장애와 연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Tsutsumi, Kayaba, Theorell, & Siegist, 2001),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증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Jung, Lee, Lee, Kim, & Kim, 2007; Tennant, 2001; Yoon, 2009).

그동안 교사의 건강관리가 포괄적인 학교건강증진사업의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Kim, Kim, & Park, 2008)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국내외에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진행되었던 몇몇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중간수준정도이며 보건교사의 역할에 따른 과중한 직무요구, 학교 보건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자원의 부족, 부적절한 보상 등을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Green & Reffel, 2009; Kang et al., 2010; Oh & Kwon, 2010). 그러나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에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연구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로 도구개발팀은 도구 개발 후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여 직무스트레스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Chang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종에서 이미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우울 등 관련변인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보건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건교사의 직무에 관한 정신건강상태를 사정함으로써 보건교사의 직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보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사 208명 전수이다. 대상자수는 G 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multiple regression에서 유의수준 .05,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4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총 74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C 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IRB 승인(제11-38호)을 받은 다음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먼저 직접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얻은 후 D광역시

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사 직무연수교육에 참석한 208명의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비밀유지 및 비위해성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구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는 서면동의 후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였고, 설문지는 작성 후 훈련된 연구보조원 2명이 직접 수거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160명 중 불충분한 자료 14부를 제외한 146명(91%)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Chang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직장문화,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점수는 도구의 지침에 따라 (실제점수-문항수)×100/(각 영역의 최고점수-문항수)로 구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각 영역 점수의 총합)/8로 구하였다. 점수범위는 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각 영역별로 Cronbach's α 값이 .51 - .82였고, 본 연구에서 각 영역별 Cronbach's α 값은 .41 - .87이었다.

2) 우울

Beck (1978)이 개발한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Rhee 등(1995)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을 나타내는 21개 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범위는 0-6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하고, 0-9점은 정상, 10-15점은 경증우울, 16-23점은 중등도 우울, 24점 이상은 중증우울을 의미한다. Rhee 등(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8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우울 정도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우울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연령은 40세 미만 41명(28.1%), 40-49세 52명(35.6%), 50세 이상 53명(36.3%)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00명(68.5%)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3년제 졸업이 15명(10.3%), 대학졸업 이상이 131명(89.7%)이었고, 보건교사 경력은 21년 이상이 59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18명(80.8%)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99명(67.8%)이었다. 대상자는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지각한 경우가 20명(13.7%), '좋다'라고 지각한 경우가 126명(86.3%)으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중 관절염과 갑상선 질환 등 신체적 질환을 가진 경우가 50명(34.2%)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정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총 100점 만점에 평균 41.0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직무요구에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1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40	41(28.1)
	40-49	52(35.6)
	50≤	53(36.3)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100(68.5)
	Middle school	29(19.9)
	High school	17(11.6)
Education	College	15(10.3)
	Over university	131(89.7)
Occupational career (years)	≤ 10	43(29.5)
	11-20	44(30.1)
	21≤	59(40.4)
Marital status	Married	118(80.8)
	Single	28(19.2)
Religion	Have	99(67.8)
	Have not	47(32.2)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Bad	20(13.7)
	Good	126(86.3)
Physical disease	Have	50(34.2)
	Have not	96(65.8)

Table 2. Means of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Subjects

N = 146

Variables		M(SD)/n(%)	Min-Max
Occupational stress	Total	41.0(8.75)	16.7-67.2
	Physical environment	22.2(11.39)	0.0-61.5
	Job demand	50.7(16.86)	4.2-95.8
	Insufficient job control	41.6(10.86)	13.3-73.3
	Interpersonal conflict	42.2(14.71)	0.0-83.3
	Job insecurity	40.5(14.07)	0.0-77.7
	Organizational system	47.9(12.96)	9.5-76.1
	Lack of reward	44.8(13.71)	11.1-83.3
	Occupational climate	38.8(17.66)	0.0-100.0
Normal group (< 51.2)		128(87.7)	
Stress group (51.2≤)		18(12.3)	
Depression		5.6(5.49)	0-30
	Normal group (≤9)	120(82.2)	
	Depression group (10≤)	26(17.8)	

5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직체계 47.9점, 보상부적절 44.8점, 관계갈등 42.2점, 직무자율성 결여 41.6점, 직무불안정 40.5점, 직장문화 38.8점, 물리 환경 22.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Chang 등 (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 여성 근로자들의 상위 50%에 해당하는 직무스트레스 평균 51.2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스트레스군은 전체의 12.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평균 5.6점이었으며, Rhee 등(1995)의 기준에 따라 우울 평균 9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우울군은 전체의

17.8%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연령 ($F=3.46, p=.034$), 경력($F=5.20, p=.007$)과 지각된 정신건강상태($t=2.26, p=.02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Table 3.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M(SD)	t/F(p)	Scheffe	M(SD)	t/F(p)
Age(year)	>40 ^a	40.4(7.75)			5.3(5.98)	
	40-49 ^b	43.5(8.17)	3.46(.034)	b>c	5.3(5.02)	0.46(.628)
	50≤ ^c	39.1(9.59)			6.2(5.58)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40.3(8.83)			5.4(4.93)	
	Middle school	42.2(8.75)	1.26(.285)		6.1(5.00)	0.34(.708)
	High school	43.6(8.11)			6.4(8.79)	
Education	College	38.9(5.63)			6.4(5.05)	
	Over university	41.3(9.02)	-0.99(.321)		5.6(5.55)	0.57(.569)
Occupational career(years)	≥10 ^a	40.8(7.21)			5.2(6.45)	
	11-20 ^b	44.3(8.97)	5.20(.007)	b>c	5.5(4.58)	0.33(.718)
	21≤ ^c	38.8(9.00)			6.1(5.41)	
Marital status	Married	40.5(8.26)			5.1(4.38)	
	Single	43.4(10.44)	-1.56(.120)		7.9(8.50)	-2.43(.016)
Religion	Have	40.7(9.27)			5.6(5.44)	
	Have not	41.8(7.58)	0.72(.471)		5.7(5.65)	0.13(.894)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Bad	41.7(8.73)			6.0(5.60)	
	Good	37.0(7.94)	2.26(.025)		3.3(4.09)	2.08(.039)
Physical disease	Have	42.4(9.37)			7.6(6.68)	
	Have not	40.3(8.37)	-1.38(.167)		4.6(4.47)	-3.17(.002)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N=146

Variables	OS	PE	JD	IJC	IC	JL	ORS	LR	OC	Depression
	r(p)	r(p)								
OS	1									
PE	.55 (<.001)	1								
JD	.57 (<.001)	.37 (<.001)	1							
IJC	.52 (<.001)	.31 (<.001)	.36 (<.001)	1						
IC	.58 (<.001)	.13 (.104)	.17 (.036)	.19 (.017)	1					
JL	.52 (<.001)	.11 (.187)	.28 (.001)	.17 (.030)	.25 (.002)	1				
ORS	.73 (<.001)	.32 (<.001)	.19 (.020)	.28 (.001)	.47 (<.001)	.22 (.008)	1			
LR	.70 (<.001)	.31 (<.001)	.21 (.011)	.24 (.003)	.31 (<.001)	.20 (.012)	.61 (<.001)	1		
OC	.73 (<.001)	.32 (<.001)	.20 (.012)	.22 (.006)	.33 (<.001)	.30 (<.001)	.58 (<.001)	.58 (<.001)	1	
Depression	.35 (<.001)	.27 (.001)	.37 (<.001)	.31 (<.001)	.13 (.104)	.11 (.187)	.32 (<.001)	.31 (<.001)	.32 (<.001)	1

OS=occupational stress; PE=physical environment; JD=job demand; IJC=insufficient job control; IC=interpersonal conflict; JL=job insecurity; ORS=organizational system; LR=lack of reward; OC=occupational climate.

40-49세군이 50세 이상군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력은 11-20년군이 21년 이상군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는 결혼상태(t=-2.43, p=.016), 지각된 정신건강상태(t=2.08, p=.039), 신체질환(t=-3.17, p=.002)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우울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물리적 환경($r=.27, p<.001$), 직무요구($r=.37, p<.001$), 직무자율성 결여($r=.31, p<.001$), 조직체계($r=.32, p<.001$), 보상부적절($r=.31, p<.001$), 직장문화($r=.32,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왔던 결혼상태, 지각된 정신건강상태, 신체질환을 dummy화 한 다음 직무스트레스와 함께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회귀모형의 기본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94~.98 사이에 있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1~1.10으로 나타났으며, 잔차들의 히스토그램 결과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전체 변수가 모두 입력된 상태에서 산출된 우울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F=8.87, p<.001$), 대상자의 우울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beta=.29, p<.001$)와 신체질환의 유무($\beta=.20, p=.007$)가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우울에 대하여 1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0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된 연구가 없어 비교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된 결과 중앙값에 못 미치는 점수를 보고한 Kang 등(2010)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중간수준 이상으로 보고한 Choi (2001)와 Park (2011)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건교사의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Choi, 2001; Kang et al., 2010)로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는 주로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기 때문인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방문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된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 평균 46.6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oon (2009)의 연구에서 평균 47.2점 보다 다소 낮았으나 Chang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국 여성근로자의 평가 참고치와 비교하였을 때 모두 하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중 12.3%는 전국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점수인 51.2점 이상의 스트레스군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 직무요구가 평균 5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체계, 보상부족, 관계갈등,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직장문화, 물리적 환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hang 등(2005)

Table 5. Predictors of Depression

Variables	β	t	p	Adj.R ²	F(p)
Marital state	.13	1.74	.084	.17	8.87 ($<.001$)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09	-1.25	.213		
Physical disease	.20	2.72	.007		
Occupational stress	.29	3.82	$<.001$		

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국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직무요구, 보상부족, 직무불안정, 직장문화는 25-49%의 중간수준, 조직체계, 직무자율, 물리적 환경은 하위 25%의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관계갈등은 상위 25%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갈등은 직장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료, 상사 및 전반적 지지를 말한다(Chang et al., 2005). 이는 도구는 다르지만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인간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난 Choi (2001)와 Choi (200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교사와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Choi (2002)는 연구결과 하위영역 중 인간관계가 두 군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보건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 보건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보건교사는 한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며 일반교사와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소속감이 낮은 반면에 업무의 특성 상 학생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나 학부모, 협력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기관과의 빈번한 대인관계가 요구되기(Choi, 2002; Green & Reffel, 2009; Park, 2011)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대인관계 요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요인일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Park, 2011) 관계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추후 연구와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직장-가정양립, 업무다기능 등을 포함한다(Chang et al., 2005). 최근 보건교사의 역할은 신체검진과 전염병 관리에서 학교 보건교육과정을 통한 학생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더 나아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건강증진사업의 수행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보건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직무요구는 과중해진 반면 전담인력의 지원이 부족하고 경력에 비해 보수나 승진 및 연수기회 등 보상을 낮게 지각하며 중등보건교사의 경우 입시위주의 학교환경에서 직업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 & Reffel, 2009; Kang et al., 2010; Oh & Kwon, 2010) 또 본 연구 대상은 80% 이상이 기혼 여성으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무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보상부족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Park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보상에 대한 공정성은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으므로(Lee, 2008)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63점 만점에 평균 5.6점으로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와 Jeon (2011)의 연구에서 우울평균 9.03점과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Byun, Youn, Jung-Choi, Cho와 Paek (2009)의 연구에서 우울평균 17.0점 보다 낮았다. 또 도구는 다르나 기혼 여교사는 비교적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경향이 낮다고 보고한 Jung과 Oh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우울점수가 10점 이상의 우울군이 전체 대상자의 17.8%였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 등(2007)의 연구에서 우울군을 10.9%로 보고한 결과보다 높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우울 평가 도구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우울군의 경우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연령과 보건교사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0-49세 군이 50세 이상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교사 경력이 11-20년 군이 21년 이상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oi (2002)의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경험이 적어 조직사회에서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지각한다고 보고한 것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보건교사는 임상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중 40-49세의 연령군은 11-20년의 경력자로 예상되며 이 시기는 직장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업이나 진학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어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Kang 등 (2010)는 보건교사의 경력이나 연령에 따라 직무스트

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Cho (2007)는 연령과 경력 등의 업무요인 이외에도 직무만족도, 자아개념, 성취동기와 같은 요인이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추후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규명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지각된 정신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지각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스트레스가 더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에서는 결혼상태, 지각된 정신건강상태와 신체질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Jung & Oh, 2009; Lee, Ryu, Byun, & Park, 2004; Yoon, 2009)과 유사한 결과였다. Lee (2001)는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신체건강보다 정신건강을 더 좋지 않게 지각하였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신체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Cho, Kim과 Kim (2009)은 알러지나 위장장애 등 만성적이고 경미한 신체적 건강문제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는 잦은 결근률과 업무성과 손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학교급, 교육정도, 종교에 따라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Choi, 2001; Choi, 2002; Cho, 2007)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 자율성결여,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가 우울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도구는 다르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Dragano et al., 2008; Lee et al., 2004; Yoon, 2009)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나 대상자의 우울을 증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임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체질환의 유무와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보건교사의 우울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는 우울에 대하여 총 1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의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Jung et al., 2007; Tennant, 2001; Yoon, 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Yoon (2009)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ragano 등(2008)은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간에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노력에 따른 보상은 적은 반면에 의무는 과도한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서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질병 유무에 따라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Yoon 등(2006)과 Lee 등(2004)의 연구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Lee 등(2004)의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대상보다 연령이 낮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므로 병원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유무에 따라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Yoon 등(2006)의 연구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대상과는 성별에서 차이가 있었고 질병 유무에 따른 우울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im 등(2008)은 기혼 여교사를 대상으로 건강행위정도를 조사한 결과 운동, 식습관, 수면 등 바람직한 건강행위 수행도가 낮았으며 여교사의 경우 남교사와는 달리 교직 외에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건강상의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교사의 직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 및 우울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울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

기 위한 학교 관리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처가 더욱 중요하므로 보건교사를 위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지역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간의 관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중간이하의 수준이었고 우울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질환의 유무와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들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17%였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우울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관리와 더불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며 추후 이를 반영한 보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국에 일반화하는데 신중함이 필요하며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보건교사의 직무 효율성과 정신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고위험군인 직무스트레스군과 우울군을 선별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전인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

- Beck, A. T. (1978).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Philadelphia: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 Byun, C. B., Youn, K. W., Jung-Choi, K. H., Cho, Y. H., & Paek, D. M. (2009). Depressive symptoms of workplace violence exposed subjec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21, 314-323.
- Chang, S. J., Koh, S. B., Kang, D. M., Kim, S. A., Kang, M. G., Lee, C. G., Chung, J. J., Cho, J. J., Son, M. A., Chae, C. H., Kim, J. W., Kim, J. I., Kim, H. S., Roh, S. C., Park, J. B., Woo, J. M., Kim, H. R., Kim, J. Y., Ha, M. N., Park, J. S., Rhee, K. Y., Kim, H. R., Kong, J. O., Kim, I. A., Kim, J. S., Park, J. H., Huyun, S. J., & Son, D. K. (2005).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ccupation Environment Medicine*, 17(4), 297-317.
- Chen, W. Q., Siu, O. L., Lu, J. F., Cooper, C. L., & Phillips, D. R. (2009). Work stress and depression : the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informal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ess and Health*, 25, 431-443.
- Cho, C. M., Kim, K. S., & Kim, M. H. (2009). Health problems and work impairment in nurses working at community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1), 66-77.
- Cho, S. Y. (2007). *The factors through influence of the job stress to a secondary school health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Choi, S. J. (2002). *A comparative study on a level of job stress for nurses-teacher and ordinary teacher and its managing meth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Choi, Y. L. (2001). *A study on the accomplishment of jobs,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of school nurses in Chon-buk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Dragano, N., He, Y., Moebus, S., Jockel, K-H., & Eebel, R. (2008). Two models of job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Society of Psychiatry & Psychiatric Epidemiology*, 43, 72-78.
- Green, R. & Reffel, J. (2009). Comparison of administrator's and school nurses' perception of the school nurse role.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5, 62-71.
- Jung, H. Y. & Oh, Y. J. (2009). A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female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 187-199.
- Jung, K. Y., Lee, H. J., Lee, Y. I., Kim, J. I., & Kim, Y. G. (2007). The effects of job stress for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6, 158-167.
- Kang, I. S., Cho, S. Y., & Jung, H. J. (2010).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of school nurses in secondary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 286-295.
- Kim, H. & Kim, H. L. (2011). A study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and stress of visiting nurses at district health centers in chungnam provinc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2), 204-211.
- Kim, G. S. (2003). Work stress and related factor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212-223.
- Kim, G. S., Kim, B. J., & Park, J. Y. (2008). Factors affecting health behavior practices of married women teacher.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2), 186-199.
- Lee, H. Y. & Jeon, H. S. (2011).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expectancy, mindfuln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the marital middle-aged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1, 275-284.
- Lee, M. A.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stice of compensation and the intention of turnover perceived by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 195-204.
- Lee, M. O., Ryu, S. Y., Byun, I. G., & Park, J. H.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in some clinical nurses.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29(2), 26-37.
- Lee, M. S. (2001).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the teacher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school in Seoul.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ies Education*, 5, 95-105.
- Lerman, C. & Glanz, K. (2002). *Stress, coping, and health behavior*. In Glanz, K., Rimer, B. K., & Lewis, F. M. (ed), *Health behavior and education : theory, research. practice* (139-148).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y. (1999). *Stress at work*. DHHS(NIOSH) publication No. 99-101.
- Oh, J. A. & Kwon, J. O. (2010). Job identify and job stress on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Journal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3), 341-350.
- Park, E. J. (2011).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of health teachers-focused on work environment, work-related str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Rhee, M. K., Lee, Y. H., Park, S. H., Sohn, C. H., Chung, Y. C., Hong, S. K., Lee, B. K., Chang, P. L., & Yoon, A. R. (1995). A standardization study of Beck sepression inventory I-korean version (K-BDI). *The*

-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4, 77-95.
- Tennant, C. (2001). Work-related stress and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 697-704.
- Tsutsumi, A., Kayaba, K., Theorell, T., & Siegist, J. (2001).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among Japanese employees threatened by job loss in a comparison between two complementary job-stress models.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27, 146-153.
- Yang, S. O., Kwon, M. S., Jeong, G. H., & Lee, S. H. (2009). A study on the awareness of importance, performance level, and perceived competence level of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 96-104.
- Yoon, S. H. (2009).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 using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5, 463-470.
- Yoon, S. H., Bae, J. Y., Lee, S. W., An, J. E., & Kim, S. E. (2006). The effects of job stress, drinking and smoking among Korean men.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 Medical sociology*, 19, 31-50.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of School Nurses

Kyongok Oh(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oonhee Gang(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nthyun Lee(Research Assistant,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occupational stress and to determine level of depression of school nurse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depression.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employ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included 146 school nurses from D c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 January 17-21, 2011,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SPSS/WIN 11.5 was used in performance of data analysis.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occupational stress were observed according to age, occupation and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and in depression according to marital status,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and physical disease.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occupational stress ($r=.35$, $p<.001$). In regression analysis, occupational stress and physical health state were found to be the cause of depression in 17% of subject.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allow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occupational stress and level of depression of school nurses in Korea. Further study using a larger random sample and various variables is needed.

Key words : Occupation, Stress, Depression, School nurse